

✽ 동양시멘트(주)

〈승진〉

- 김원호 명 해운본부 공무팀장 부장
- 박상필 명 삼척공장 생산담당 제품팀장 부장
- 강상우 명 시멘트본부 동부지사 부산영업팀장 부장
- 한상욱 명 시멘트본부 서부지사 제주영업팀장 겸 제주공장장 부장
- 최동진 명 관리본부 총무인사팀장 부장
- 최범림 명 관리본부 총무인사팀 서남재단 파견 부장
- 손태구 명 관리본부 총무인사팀 부장
- 황이원 명 전략본부 기획예산팀장 부장
- 류재훈 명 시멘트본부 서부지사 관리팀장 겸 광주공장장 차장
- 남호천 명 삼척공장 생산지원담당 환경안전팀 차장
- 장형일 명 삼척공장 생산지원담당 시설관리팀 차장
- 김현수 명 삼척공장 신광산TFT 차장
- 김태훈 명 삼척공장 생산담당 자원팀 차장
- 이내형 명 해운본부 해무팀 차장
- 이정재 명 전략본부 기획예산팀 차장
- 정성남 명 시멘트본부 동부지사 부산공장장 겸 김해공장장 겸 동부/경상지사 설비관리담당 차장
- 서동원 명 삼척공장 생산담당 자원팀 차장
- 이규찬 명 시멘트본부 서부지사 광양S공장 차장
- 이영환 명 삼척공장 생산담당 생산1팀 차장
- 지덕규 명 삼척공장 생산담당 품질관리팀 차장
- 손성호 명 삼척공장 생산담당 생산1팀 차장
- 정환목 명 구매기술본부 기술팀 차장
- 임수용 명 시멘트본부 중부지사 전북영업팀장 겸 군산공장장 차장
- 배경희 명 관리본부 총무인사팀 차장
- 장주찬 명 삼척공장 생산담당 생산팀 과장

- 이규민 명 삼척공장 생산지원담당 업무지원팀 과장
- 정재우 명 시멘트본부 동부지사 부산영업팀 과장
- 정재임 명 재무본부 재무팀과장
- 서준영 명 시멘트본부 경상지사 경북영업팀 과장
- 정영래 명 시멘트본부 서부지사 광양영업팀 과장
- 홍원호 명 관리본부 총무인사팀 과장
- 김경필 명 삼척공장 생산담당 제품팀 과장
- 김태형 명 삼척공장 생산담당 생산1팀 과장
- 임호찬 명 삼척공장 생산담당 생산2팀 과장
- 나영찬 명 삼척공장 생산담당 생산1팀 과장
- 장보규 명 시멘트본부 경상지사 울산영업팀 과장
- 유시현 명 시멘트본부 동부지사 관리팀장 과장
- 유지선 명 시멘트본부 강원지사 강원영업팀 과장
- 태만식 명 관리본부 총무인사팀 과장
- 황영진 명 전략본부 경영기획팀 과장

(2007. 3. 1)

✽ 쌍용양회공업(주)

〈임원〉

- 김인철 명 부사장 (2007. 3. 23)

✽ 한일시멘트(주)

〈승진〉

- 김기만 명 본사 경영기획실 기획팀 과장
- 김광유 명 본사 경영기획실 경영관리팀 과장
- 성하운 명 본사 관리본부 총무팀 과장
- 한승운 명 본사 관리본부 재무팀 과장
- 하영현 명 본사 영업본부 시멘트영업팀 과장
- 이상선 명 본사 영업본부 영업지원팀 과장
- 박성도 명 단양공장 관리팀 과장
- 김동훈 명 단양공장 제조실 공무팀 과장
- 김영삼 명 본사 관리본부 자재팀 과장

# 인사동정

이창기 명 인천공장 제조팀 과장  
 김영만 명 단양공장 제조실 생산팀 과장  
 박정순 명 중부영업본부 청주공장 품질관리팀장  
 김도근 명 중앙연구소 건설재료2팀 과장  
 서신석 명 중앙연구소 건설재료2팀 과장  
 (2007. 2. 1)

## <이 등>

박홍서 명 인천공장 제조팀장  
 전재철 명 본사 기술본부 기술팀 차장  
 양민석 명 인천공장 영업팀장  
 최명석 명 단양공장 생산관리팀 과장  
 이상호 명 단양공장 제조실 공무팀 과장  
 신 준 명 본사 관리본부 회계팀 과장  
 한용근 명 중부영업본부 대전공장 영업팀장  
 김쌍철 명 부산영업본부 가야공장  
 및 함안공장 영업팀장  
 나상철 명 단양공장 제조실 생산팀 과장  
 최장규 명 영등포공장 제조팀장  
 이성윤 명 단양공장 환경팀 과장  
 이은영 명 본사 영업본부 시멘트영업팀 과장  
 정기훈 명 영등포공장 영업팀 과장  
 이창진 명 대구영업본부 포항공장 제조팀장  
 김정렬 명 단양공장 제조실 공무팀 과장  
 박태호 명 부산영업본부 김해공장 영업팀장  
 이영규 명 영등포공장 영업팀장  
 박찬훈 명 단양공장 연구개발팀 과장  
 (2007. 2. 1)  
 김동훈 명 단양공장 생산관리팀 과장  
 (2007. 4. 13)

## <퇴 직>

이용규 (단양공장 관리팀 과장)  
 유효상 (단양공장 환경팀 과장)  
 노태형 (영등포공장 영업팀 과장)  
 김창섭 (대구영업본부 대구공장 레미콘영업팀  
 과장)  
 이화희 (중부영업본부 대전공장 영업팀 과장)  
 (2007. 1. 31)

변성환 (단양공장 생산관리팀 과장)  
 (2007. 4. 13)

## \* 현대시멘트(주)

### <임 원>

김 양 명 레저사업본부 총괄본부장 부사장  
 (2007. 5.21)

## \* 아세아시멘트(주)

### <임 원>

박남규 명 이사  
 이상현 명 이사대우  
 (2007. 3. 1)

### <승 진>

김무경 명 본사 시멘트영업팀 차장  
 장문현 명 본사 경영관리팀 차장  
 김장원 명 본사 경영관리팀 차장  
 황승현 명 본사 시멘트영업팀 과장  
 정지용 명 중부공장 품질관리파트 과장  
 김향배 명 대구공장 구미영업소 과장  
 홍진배 명 제천공장 제품파트 과장  
 김용희 명 본사 기획팀 과장  
 이영준 명 서울 레미콘공장 D/M 파트 과장  
 정창봉 명 본사 레미콘영업팀 과장  
 구현모 명 본사 전산팀 과장  
 김태구 명 본사 총무팀 과장  
 (2007. 3. 1)

### <이 등>

박승모 명 제천공장 공정연구파트 부장  
 이우형 명 제천공장 생산파트 부장  
 정현일 명 본사 기획팀 부장  
 권오봉 명 제천공장 생산파트 차장  
 임경태 명 제천공장 관리파트 차장

최대용 명 대전공장 대전영업소 과장  
 정순호 명 제천공장 업무파트 과장  
 이찬우 명 본사 기획팀 과장 (2007. 3. 1)

✳ 라파즈한라시멘트(주)

<전 입>  
 남인수 명 생산본부 Process Control팀 차장  
 이복환 명 생산본부 생산2팀 차장 (2007. 3. 1)

✳ 고려시멘트(주)

<이 동>  
 최세진 명 생산팀장 부장 (2007. 5. 21)  
 정영호 명 경영기획팀 차장 (2007. 5. 1)  
 황의울 명 영업기획팀 차장  
 정운태 명 전북영업소장 차장 (2007. 6. 7)  
 김채수 명 영업팀 전북영업소 과장 (2007. 5. 1)

<전 입>  
 이문구 명 생산본부 기술팀 Technical Project  
 Manager 차장 (2007. 3. 1)  
 김동욱 명 생산본부 생산관리팀 차장  
 (2007. 4. 1)  
 이상학 명 영업본부 마케팅팀 과장(2007. 4. 11)  
 김병수 명 안전보건팀 과장 (2007. 5. 1)

<퇴 직>  
 전관석 (기술2팀 부장) (2007. 6. 30)

<전 출>  
 황태현 명 Lafarge Asia Sdn Bhd (2007. 3. 1)

시사 용어 해설

▶ 엑스-플로리어법

미국에서 1988년 제정된 외국인 투자제한법이다. 대통령이 국가안보에 대한 위해여부를 판단해 외국자본의 투자행위를 규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기술유출을 막는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미국 의회가 일본 자본에 의한 미국기업 인수합병(M&A)을 막고자 도입한 측면이 크다. 당시 미국에서는 일본기업의 미국기업 인수가 크게 늘자 반외자, 특히 일본 자본에 대한 반감이 심해지며 보호주의 성향이 팽배했다. 실제로 미국 대통령이 엑스 플로리어 규정에 따라 투자를 불허한 것은 1989년 중국의 '내셔널 에어로-테크놀로지 임포트 앤 익스포트(National Aero-Technology Import and Export Corporation)'가 미국 항공기 부품 제조회사와 관련이 있는 '맴코(MAMCO)'와 체결한 계약을 철회시킨 사례다. 그러나 법 집행에 적극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은행(론스타가 인수)이나 쌍용차(상하이기차), 하이닉스의 액정표시장치(LCD) 사업부인 하이디스(중국 비오이그룹) 등의 사례로 인해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삼성전자나 포스코에 대한 외국기업의 적대적 M&A 가능성 주장 등도 한몫했다. 열린우리당 이상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안보에 반하는 외국인 투자규제법안'과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투자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으로 구체화됐다. 그러나 해외투자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기업집단의 경영권 방어에 이용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반대 목소리도 높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